

70년 해로하고 한날한시 손잡고 세상 떠난 부부



▲ 사진=한시에 숨을 거둔 딕과 셸리. 유튜브(WBNS 10TV) 캡처

70년을 해로한 부부가 불과 몇 분 차이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이들 부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오하이오주에서 살고 있던 딕(89)과 셸리(87)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결혼 70주년을 맞았다. 슬하에 5명의 자식과 13명의 손주, 그리고 28명의 증손주가 있을 정도로 70년의 결혼 생활은 부부에게 행복 그 자체였다.

이들 부부는 이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으며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지난 1월 8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부부는 병원에 입원에 다른 층으로 분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오히려 악화됐고 결국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부부의 딸 하퍼는 “병원 측에 부모님이 한 방에 함께 있게 해달라 간청했으며 고맙게도 이를 들어줬다.”면서 “존 덴버의 애창곡이 나오는 병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별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 부인 셸리가 먼저 눈을 감았다. 이에 간호사가 남편 딕에게 ‘이제 손을 놓아도 괜찮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남기자 곧 그 역시 숨을 멈췄다. 이렇게 지난 12일 부부는 70년이라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딸 하퍼는 “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우리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부모님은 정말 동화같은 결말을 맺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숨진 부부는 1월 19일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정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남편 꿈에 나온 번호로 복권 당첨된 여성

코로나19로 실직한 한 여성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 특히 이 여성은 20년 전 남편이 꿈에서 본 번호를 기입해 대박을 터뜨리는 행운을 얻었다.

지난 24일 캐나다 CTV News에 따르면 토론토에 살고 있는 덩 프라바투둠(57)씨가 6,000만 캐나다달러(미화 약 4,7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다.



▲ 사진=복권 당첨된 프라바투둠, 페이스북(CTV News)

프라바투둠은 “20년 전 남편의 꿈에서 본 번호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면서 “복권 당첨이라는 믿기 힘든 행운이 내게도 찾아왔다.”며 기뻐했다.

라오스 출신인 프라바투둠은 1980년 14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해 40년 간 노동자로 일해오며 두 명의 자식을 힘겹게 키워왔지만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그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연말이다. 20년 간 매주 구매해 온 온타리오주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프라바투둠은 “지난 40년 간 가족을 위해 닦치는 대로 일해왔다.”면서 “이민자로서 대박 복권 당첨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로 왔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유럽, 하와이 등을 여행하며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 불륜 증거 사진 속 여자는?



▲ 사진=멕시코 경찰 자료 사진, shutterstock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한 여성이 남편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멕시코 소노라주에 사는 이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본 여성은 남편이 외도했다고 화를 내며 부엌으로 가 흥기를 집어 들어 남편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비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내를 체포해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편 휴대전화 속 여성 사진은 다른 아닌 본인의 옛날 사진이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줄 알고 격분해 흥기로 여러 번 남편을 찼다. 하지만 피의자가 봤다는 사진은 수년 전 본인이 남편과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여성이 너무 어리고, 날씬하고, 예뻐서 과거의 본인이었을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아내의 해명도 덧붙였다.

남편은 아내가 본 사진은 자신과 아내가 지금보다 젊고 훨씬 더 날씬했을 때 찍은 사진이며, 오래된 사진을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고 싶어 디지털 화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휘두른 흥기에 다친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내는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현지 매체는 “아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전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